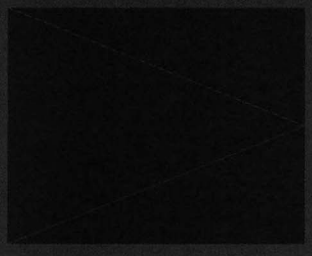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에 있어서도 20세기는 거장의 시대로 기록된다. 수제자 김중업을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르 꼬르뷔제를 위시하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미스 반 데어 로에 같은 불세출의 건축가들이 출현해 기념비적인 건축미학을 실현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르 꼬르뷔제는 집을 가리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기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우리는 여기서 집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는 말을 남겼다. 그들의 말 속에는 20세기를 풍미한 건축미학의 핵심이 자리잡고 있다.

현대건축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건축에 실제적 혹은 이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건축가의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파주북시티의 총괄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승효상(51)의 건축에세이 《빈자의 미학》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도시건축가 알도 로시(70)의 《도시의 건축》이다.

《빈자의 미학》은 르 꼬르뷔제의 건축미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문법을 실험하고 있는 승효상이 쓴 건축에세이다. 승효상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미학을 때로는 장엄한 시적 수사로 때로는 정제된 논리로 웅변한다. 승효상이 대중적인 건축가로 알려진 것은 《나의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의 개인집 '수졸당'과 대학로의 '동숭동문화공간'을 만든 건축가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수졸당은 승효상의 건축미학이 유감없이 반영된, 이를테면 자연과 인공, 그리고 건축주의 품위를 잘 조화시킨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자신의 건축관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간의 삶은 심층적인 사회적 갈등들과 역사의 진실된 내용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문화로서,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려고 하는 한 그 삶이 지향하는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위장된 세트로서 우리의 삶을 기만시키기 쉽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토지를 점거해야 하는 건축은, 그 장소가 요구하는 특수한 조건들을 맞춰줘야 한다. 기후와 지리 등의 자연적 조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궈낸 인문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세팅되고 알맞은 옷을 입을 때 이는 그 장소에 적확한 건축이 된다."

그의 건축 철학이 다른 건축가의 철학과 대별되는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토지에 대한 건축적 정의다. 그는 건축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본질적 위상을 격상시킨 건축가로 평가받는다. 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건축가의 의무는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토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삶 이전에 태어나 있었으며, 그 이후로 영겁의 세월을 지내어 와 있다. 그 세월 속에서 수없는 사연들이 담기고 또 지워졌을 것이며, 그러한 흔적의 축적은 형언키 어려우리만큼 엄청난 양으로 그 속에 용해되어 있을 것이다. 토지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 이 토지는 고유하며, 그 고유성으로 인해 그 가치는 그것의 중요도에서 평가절하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장소성의 회복은 건축가로서 지켜야 할 토지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된다. 토지 속에 담겨진 흔적을 발견해 내는 것,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또한 그 속에서

삶과 문화, 자연과 밀접한 도시건축을 향한 두 건축가의 에세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침묵하는 토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토지에 생명을 갖게 하며, 이에 비로소 그 장소성은 회복된다."

책제목이기도 하면서 승효상의 건축철학을 대표하는 '빈자의 미학'은 1992년 소장 건축가의 모임인 '4·3 그룹'에서 활동하며 마련되었다. 그는 '빈자의 미학'이 가난한 자를 위한 건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강조하는 액센트가 '빈자'에 있지 않고 '미학'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빈자가 아니라 미학이다. 달동네 사람들은 건물을 허물지 않는다. 필요하면 덧대어 짓거나 사유공간을 줄여 공유공간을 늘린다. 보존과 공유가 바로 빈자의 미학이다."

빈자의 미학은 다시 '불확실성의 공간'과 '비움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아우른다. 그에게 공간은 채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움의 대상이다. 그는 비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건축의 한 요소로 끌어들인다. 비어 있는 공간을 사람들은 나중에 삶의 문화로 채운다. 공간이 불확정적이며 불확정적일수록 채워지는 문화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건축에 대한 신념이다.

알도 로시의《도시의 건축》은 현대 도시건축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으로 "성급히 건축을 규정하고 도식화하는 데 익숙해 있던 건축가들로 하여금 건축의 일반성을 재인식하고 오랜 동안 잊고 있던 건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준 책이다. 알도 로시가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단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이 늘 염두해야 하는 사회와 문명에 대한 자의식, 즉 건축의 역할에 대한 신성한 자각이다. 본문에서 알도 로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증적 의미에서 나는 건축을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나 문명 생활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창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건축은 그 성격상 집단적인 것이다. …건축은 문명과 함께 태어난 영속적·보편적·필수적 형성물이다. …건축은 사회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사회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탄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술이나 과학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도시는 도시의 건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도시의 건축은 인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대목은 건축이 "우리의 삶이 일궈낸 인문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세팅되고 알맞은 옷을 입을 때 이는 그 장소에 적확한 건축이 된다"고 말하면서 토지와 장소성을 강조한 승효상의 건축정신과 정확하게 맞닿고 있어 흥미롭다.

알도 로시가 선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을 건축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축이 철저하게 그 사회가 가진 삶의 실재성과 얽혀 있다'는 지점에서 나온다.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삶이 가진 실재성은 건축이 가진 그것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건축은 이렇듯 그 사회가 가진 삶의 실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물적 환경을 이루는 실재 그 자체로 서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사이에서 건축은 다소 긴 시간의 고민과 생산과정을 겪게 된다.

알도 로시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도 삶과 밀접한 본질적 의미행위로서의 건축이다. 이 책을 옮긴 오경근 씨는 이 책에 담긴 로시의 건축미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로시의 현실(도시) 속에는 건축의 본질적 세계가 건축의 총체적 세계로 존재한다.《도시의 건축》은 형태의 문제를 포함해 그토록 복잡하고 모호해 보였던 건축의 본질적 속성들을 바로 그의 현실(도시)을 통해 발견하고, 증명함으로써 결국 현실(도시) 그 자체로 인식시켜 주었다."

아는 만큼 잘 보이는 것이 건축이다. 승효상과 알도 로시의 책은 도시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건축 에세이의 모범이다 끝

김도언 기자

도시의 건축 알도 로시 지음 | 오경근 옮김 | 동녘 | 412쪽 | 값 25,000원 + **빈자의 미학** 승효상 지음 | 미건사 | 100쪽 | 값 5,000원